

2025 라오스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1. 개요	1
가. 시장 전망	1
나. 주요 경제지표	1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2
가. 외환 관리 강화 및 현지화(깁) 사용 장려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2
나.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3
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관련 산업 인프라 개발	5
라. 탄소배출권 법령 초안 발표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가. 정치 환경	8
나. 경제 환경	14
다. 산업 환경	15
라. 정책·규제 환경	17
2. 시장 분석	20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0
나. 교역	21
다. 투자	24
라. 건설 플랜트 분야 유망 프로젝트	26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7
가. 교역	27
나. 투자 진출	32
다. 협력 유망 분야	33
III. 진출전략	35
1. PEST 분석	35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6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37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5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8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0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1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3.7%로 발표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4%,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대(2024년 9월)

- 여전히 3고(고환율, 고물가, 고부채) 지속 중이나 경제 회복세 전환 가능성

- 깎화의 가치는 약세이나 라오스 정부의 깎 사용 캠페인* 및 외환 모니터링 강화로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

- *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2024년 10월부터 모든 외국 기업에 현지화(깎)로 급여 지급할 것을 명령

- 라오스 깎화 가치 하락 및 수입 물가 부담으로 인플레이션율은 올해도 두 자릿수* 유지 중

- * 라오스 중앙은행 고시 인플레이션율 : ('21) 3.7% → ('22) 23.0% → ('23) 31.2% → ('24.9월) 21.7%

- 라오스 재무부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2022년 112%에서 2023년 108%로 일부 감소했으나, 향후 약 5년간 연간 약 13억 달러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 존재

- ADB는 2025년 3.7%의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며 라-중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관광객* 및 교역 증가, 광물·전력 분야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이 경제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

- * 2024년 상반기 관광객 수는 21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자료: Laotian Times)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7.11	7.21	7.32	7.43	7.48	7.58	7.69	7.79
명목GDP	십억 달러	18.13	18.77	18.51	18.53	15.12	15.20	15.19	16.22
1인당 명목GDP	천 달러	2.55	2.60	2.53	2.50	2.02	2.00	1.98	2.08
실질성장률	%	6.3	4.7	△0.4	2.1	2.3	3.7	4.0	3.7
실업률	%	2.9	2.5	2.3	2.0	1.2	1.2	1.2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	3.3	5.1	3.8	23.0	31.2	21.5	14.7
공공부채(GDP대비)	%	57	68	72	87	112	108	-	-
총수출	억 달러	55.8	61.5	66.0	83.5	99.0	99.3	-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30	39	44	48	85	93	-	-
총수입	억 달러	62.9	69.1	60.0	69.4	82.2	92.6	-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84	75	50	71	64	101	-	-
무역수지	억 달러	△7.1	△7.6	6.0	14.1	16.8	6.7	-	-
경상수지	십억 달러	△1.65	△1.32	△0.23	0.45	△0.01	△0.04	0.26	0.27
환율(연평균)	현지국/US\$	8,401	8,679	9,057	9,745	14,324	17,715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	-	-	-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3.58	7.56	9.68	10.72	6.36	16.68	-	-

주: 2024년은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

자료: IMF(인구, 명목GDP, 1인당 명목GDP, 실질성장률, 경상수지, 소비자물가상승률), ILO(실업률), GTA(수출입, 무역수지), BANK OF LAO(환율), UNCTAD(해외/외국인 직접투자), 라오스 재무부(공공부채), 무역협회(對韓 수출입)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외환 관리 강화 및 현지화(깁) 사용 장려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 ※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 ※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관련 산업(스마트시티, 스마트 물류 등) 인프라 개발
- ※ 탄소배출권 법령 초안 발표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가. 외환 관리 강화 및 현지화(깁) 사용 장려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 라오스 중앙은행, 외환 관리 강화 정책 발표

- 외환 관리·감독 계획의 일환으로 외환 예치 환율 및 외환 계좌 개설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신규 제정
 - 자본 흐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 * '23년 연례은행회의에서 중앙은행-상공부-재무부 간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수출 업체 및 투자자의 거래를 상업은행-중앙은행과 연결
 - 수출입 기업 전용 특별 예금 계좌 개설 및 수출입 결제 시 해당 계좌 전용 의무화

□ 라오스 중앙은행 주관 라오스 외환 거래 플랫폼(Lao Foreign Platform) 출시

- 중앙은행 및 15개 상업은행* 간 MOU 체결 이후 '24년 8월 공식 출시
 - 현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한 상업은행 두 곳(BCEL, 농업진흥은행) 먼저 서비스 제공 중
 - * BCEL, BIC Bank, Lao Development bank, Lao Viet Bank, Vietin Bank Lao, ST Bank, Maruhan Japan Bank Lao, Agricultural Promotion Bank, Indochina Bank,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Banque Franco-Lao, Joint Development Bank, Sacombank Lao, Canadia Bank Lao, Kasikorn Bank
 - 주식시장 거래 구조와 유사하며, 시중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LFX 기능 탑재
 - * LFX 계좌에 환전을 희망하는 통화 이체 후 사용자가 희망 환율을 설정하여 외화 거래 가능
 - 라오스 깁, 미국 달러, 태국 바트, 중국 위안화 간 매매 및 환전 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 및 상업은행의 외화 유동성 강화에 따른 거시경제 안정화

• 중앙 관리 시스템으로의 외환 유입으로 안정적인 외환 운용

- 환율 안정화에 따라 공공부채* 부담 경감 및 인플레이션 완화로 거시경제 회복으로의 선순환

* 라오스 재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부채의 59%가 달러로 이루어져 있음

나.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 라오스 기획투자부, '24.7월에 투자촉진법 개정안 발표

• 투자 규제 대상 사업 축소(44개→21개) 및 절차 간소화

〈투자 규제 대상 사업 개정 리스트〉

사업 유형	세부 활동
가공업	1) 원유를 휘발유, 경유 등의 연료로 정제하는 등 유류 제품 가공 2) 폭발물, 폭발, 신호탄 제조를 포함하여 아직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3) 무기 및 전술 장비 공장을 포함한 특별 관리 대상 무기 및 특수 전술 장비의 생산 4) 소방 장비 공장
공중보건업	민간병원
광업	1) 부가가치산업 가공공장 2) 금속, 비금속, 석탄 에너지의 분리 3) 비금속 자원인 건축용 돌을 제외한 허가 구역 외 암석
기술통신업	1) 통신 전송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공공사업(수처리)	폐기물 보관
환경	1) 디스코장, 클럽, 펌, 스낵바, 바, 노래방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 기기
금융 및 보험업	1) 은행 및 해외 은행 지점 설립 2) 증권 거래소 운영 3)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4) 보험 5) 면세 사업 6) 카지노 사업 7) 복권 사업
노동·사회복지	1) 노동 안전 및 보건 서비스 2) 라오스의 미확인 폭발물 처리 서비스 3) 시추 및 폭발 서비스
보안	보안 서비스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투자진흥국

• 투자 촉진 분야 항목 추가 선정(7개→9개)

- ¹⁾청정 농업, ²⁾수입 대체 가능한 가공산업 및 수공업업, ³⁾교육 및 인력 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위, ⁴⁾현대식 병원 & 의료 제조장비, ^{신규5)}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및 디지털 응용 분야, ⁶⁾천연자원과 관련된 관광 개발, ⁷⁾서비스 인프라 개발(대중교통, 철도, 도로, 상하수도 관리, 도시 폐기물 관리 등), ⁸⁾경제특별구역 단지 개발, ^{신규9)}국가 및 지역 간 물류 및 운송 서비스

• 특히 교육, 농업, 의료 분야의 투자 혜택을 높여 해당 분야로의 투자 강조

〈투자 촉진 분야별 이익세 인센티브 제공 기간〉

투자 지역 구분	교육	농업, 의료, 가공업	그 외 5개 분야
빈곤 및 오지 지역	무제한	15년	10년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유리한 지역	무제한	7년	4년
특별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별 인센티브 상이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투자진흥국

□ 라오스 현지 실정과 발맞춰 외국인 투자기업의 교육 분야 투자 활성화 기대

• 인근 국가 대비 낮은 최저임금과 생활물가 상승으로 제조 노동력 유출

- 태국 월 최저임금은 미화 기준 약 240달러로 라오스 최저임금(월 160만 킵, 약 80달러)에 비해 3배가량 높음
- 라오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 라오스 인플레이션율은 21.74%이며, 작년 두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 현지화 킵 평가절하로 '24년 6월 연중 최고점(26.15%) 경신
-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가 2023년부터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한국으로의 인력 파견 증가

〈연도별 라오스 근로자 선발 및 송출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송출 인원	167	17	96	611	865	972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라오스EPS센터

-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력 양성 및 직접 고용을 통해 라오스 인력 유출로 인한 고용 불안 해소

• 국내 기업 투자는 직업훈련센터와 학교 설립에 중점

- 2022~2023년간 총 14개의 교육 프로젝트 진행
- 사례 : 패션지원센터(K-LAB)는 코이카 ODA사업 일환으로 설립된 인력 양성기관으로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라오스에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봉제 진출 업종 채용 지원

다.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관련 산업 인프라 개발

□ '라오스 디지털의 날' 지정과 라오스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개발 노력

- 라오스 기술통신부, 2024년 1월 10일 '디지털 위크 2024' 개최
 - 디지털 스타트업이 참가하여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대중에게 소개
 - 매년 1월 10일을 '라오스 디지털의 날'로 지정하고 라오스의 디지털화 촉진을 다짐

□ 라오스 디지털 경제 구현 비전(National Digital Economy Development Vision 2040)

- 디지털 기술 기반 지속 성장 가능한 디지털 경제 구축 2040을 비전으로 국가 GDP에서 디지털 경제 비중을 현재 3%에서 5%로 향상
 - 아세안 10개국 중 디지털 경제 성숙도에서 라오스가 9위를 기록
 - 디지털 경제 관련 정부 정책 수립, IT 인프라 개선, E-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파크 및 스타트업 센터 설립,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 기술 활용도 제고, 디지털 인적 역량 향상 등을 2030년 전략으로 제시
 - 5년간(2021~2025) 실행 계획으로는 E-플랫폼 개발(E-결제 등), 중소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활용, E-정부체계 구현(전자문서 등), 정부의 대민 서비스 온라인화(50%), 온라인 머니를 통한 세금 징수, 디지털 파크 구축(3곳)을 통한 투자 유치 활성화, 고속 인터넷망 구축(5G, FTTx), ICT 인력 양성(국민의 0.3% → 1%) 등이 있음

□ 라오스 디지털 금융산업 현황

- 디지털 결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 현대화 및 범국가적 금융 통합 달성 추구
 - 라오스 중앙은행은 일본 핀테크 회사 SORAMITSU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라오 킵'을 개발
 - 캄보디아, 태국, 한국 등 국경 간 QR 코드 결제 시스템 구축

□ 라오스 전자정부 현황

- 공공 행정 시스템 디지털화를 위한 전자 서비스 개발
 - 정부 부처 내부 시스템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시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

〈라오스 주요 E-서비스〉

E-서비스	담당기관	설명	사이트 혹은 앱
정부 對 비즈니스 (G2B) 서비스			
라오스 무역 포털	산업통상부	수출입 절차, 특정 제품에 대한 규정 및 법률 등 무역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www.laotradeportal.gov.la
비즈니스 원스톱 서비스	기획투자부, 산업통상부	투자정보 제공, 투자 라이선스 발급 등 투자자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www.bned.moic.gov.la
라오스 서비스 포털	산업통상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법률, 규정, 결정, 조치, 절차 및 양식 등을 제공	www.dtp.moic.gov.la
Plaosme	산업통상부, 상공회의소	무역 협정 및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역 플랫폼	http://www.plaosme.com/
Gov-X	기술통신부	시민, 기업 대상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앱	Gov-X
정부 對 시민 (G2C) 서비스			
Lao 공식 관보	법무부, 내무부	법안 및 법률 초안 게시	https://laoofficialgazette.gov.la/
Khang Panya	교육체육부	청소년, 교사의 디지털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학습 플랫폼	Khang Panya Lao/ www.laos.learningpassport.unicef.org
e-Visa (전자비자)	외교부	라오스 도착 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www.laoevisa.gov.la
정부 對 정부 (G2G) 서비스			
G-net	기술통신부	정부 인트라넷 네트워크	16개 정부 부처에서 사용 중
정부 이메일	기술통신부	공무원에게 발급된 이메일 주소	개발 중
G-Share	기술통신부	공공 데이터 저장 및 공유 시스템	G-Share/ www.dgc.gov.la
G-Chat	기술통신부	공무원들을 위한 메신저	Lao G-Chat/ www.g-chat.gov.la
화상회의 시스템	기술통신부	수도과 지방의 모든 정부 사무소에 설치된 화상회의 시스템	TrueConf Video Call/ https://evc.gov.la/
E-Office	기술통신부	인터넷이 연결된 장치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Nextcould/ www.mtc.eoffice.la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조사

라. 탄소배출권 법령 초안 발표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2024년 7월 '라오스의 개방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시장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총 12개의 장, 47개의 조항이 적힌 법령 초안 발표

• **파리협정 체제 하 탄소시장 정의 및 관리체계 개발**

- 라오스는 현재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ITMO)을 승인·추적·이전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어 이번 법령을 통해 탄소 거래 시장 초석 마련
- 탄소 감축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과 더불어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외화 수입원 역할 기대

〈장별 주요 내용〉

장	장 제목	세부 내용
1	일반 규정	탄소 거래 활동의 목적, 용어 정의, 원칙, 적용 범위, 국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 포함
2	탄소 거래 활동	탄소배출권 생성 가능한 활동 유형 설명 (수목 또는 재산림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교통 개발, 산업 및 산업단지, 습지 보전 및 폐기물 관리 등)
3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 등록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 등록 절차 및 자격 사항
4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격리 계산, 승인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 감독 부서에 국제표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격리량을 계산한 책임 부여
5	탄소배출권 거래 형태 및 정보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요구사항 및 방식
6	탄소배출권 거래로 인한 이익 분배 (소득세,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 포함)	탄소배출권 거래로 인한 이익 분배 방식 및 세금 납부 의무
10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 관리 및 감독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 관리 부처 정의 및 기관의 역할 명시
12	최종 조항	법령 효력 수준 및 발효일 기재

자료: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 **2024년 10월 아세안정상회의 중 한-라 간 기후변화협정 체결**

• **(한)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라)천연자원환경부(MoNRE)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초안 작성 완료, '25년 상반기 체결 예정**

- 체결 시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화 예상

※ **2024년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사업 (전담기관 : KOTRA/KEA)**

- 투자 지원사업(KOTRA)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감축 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프로젝트당 최대 60억 원 이내, 총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이내 지원
-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KEA)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서 본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예정이 있는 사업
 - 프로젝트당 최대 2억~4억 원 이내, 총사업비의 50~80% 이내 지원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라오스는 사회주의체제 1당 지배 국가로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음
- ※ 3고 현상(高환율, 高물가, 高대외부채) 지속으로 경제 피로도 심화
- ※ 3고 현상 타파를 위한 라오스 정부의 재정 긴축, 통화 긴축 정책

가. 정치 환경

□ 인민민주공화제 1당 체제로 안정적 정치 환경 유지

- **라오스 왕정이 폐지되며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수립(1975년 12월 2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
 -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근본적인 정치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1당 체제)
 - *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인민의 주권이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제도를 통해 행사되며, 모든 권한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기본적 구성 요소로 하는 전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인민에 의해 행사되는 인민민주국가로 규정(헌법 제1장)
-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 정치적으로는 라오인민혁명당 중심의 1당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
 -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행정수반인 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부 주요 인사가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 담당 정치국원을 겸임하는 집단지도체제

□ 행정부 구조

- **중앙정부**
 - 국가주석은 라오스의 국가원수로, 국회의 의결로 선출(출석의원 2/3 이상, 임기 5년)
 - * 현 국가주석(2021년~) :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 총리는 국회 승인을 받아 국가주석이 임명하며, 행정부 지휘/감독 권한이 있음
 - * 현 총리(2022년~) :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 중앙정부 조직은 17개 정부 부처, 2개 장관급 기관(총리실 및 중앙은행)으로 구성

〈라오스 정부 부처 구성(총 1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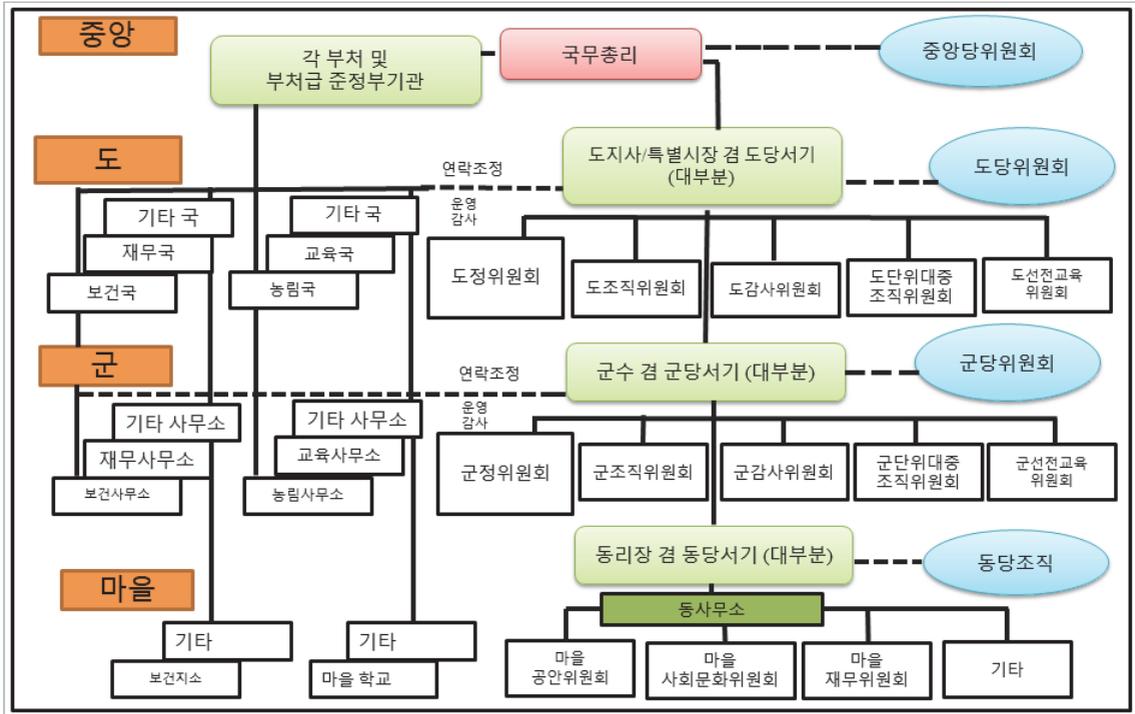
연번	부처명(국문)	부처명(영문)
1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	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3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4	기획투자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5	기술통신부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6	농임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7	천연자원환경부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8	노동사회복지부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Welfare
9	정보문화관광부	Ministry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10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11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12	교육체육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13	보건부	Ministry of Public Health
14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15	내무부	Ministry of Home Affairs
16	에너지광산부	Ministry of Energy and Mines
17	산업통상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조사

• 지방정부

-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Vientiane Capital) 및 17개 주(州)로 구분
- 각 주는 시(나콘, Nakhon), 군(므앙, Meuang), 마을(반, Ban) 단위 행정구역으로 구분
- 비엔티안특별시장 및 주지사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가주석이 임명
- 각 주/군/마을은 주지사/군수/동리장 및 산하 각 부서/사무소/센터로 구성

〈라오스 중앙-지방 간 조직 관계도〉



자료: 라오스 국회, 관보

□ 입법부

- 국회는 단원제로, 의원 정수는 164명이고(여성의원 36명) 임기는 5년임

* 현 국회의장(2021년~) : 싸이솨폰 폼비안(Xaysomphone Phomvihane)

- 국회의원 모두가 라오스 유일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소속이면서 당 산하단체인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 일원
- 의원은 직접선거/보통선거로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 부여
 - 각 선거구(총 18개 선거구 : 비엔티안특별시 및 17개 주) 주민은 선거구에 배정된 국회의원 수만큼 복수로 투표하며, 국회의원은 득표 순으로 선출됨
 - 라오스는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제도를 도입했으며, 2021년 2월 제9대 국회의원 및 제2대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함
- 라오스 국회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외교위원회, 기획재정감사위원회, 법무위원회, 경제기술환경위원회, 문화사회위원회, 소수민족위원회, 사법위원회, 국방공안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

등으로 구성

- 국회의장, 부의장 5명, 9개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

- 정기국회는 연 2회 개최되며, 국회는 헌법 승인 및 수정, 법률 개폐 및 수정, 국가 주요 정책 승인, 국가주석 선출, 총리 및 장관 임명 등의 권한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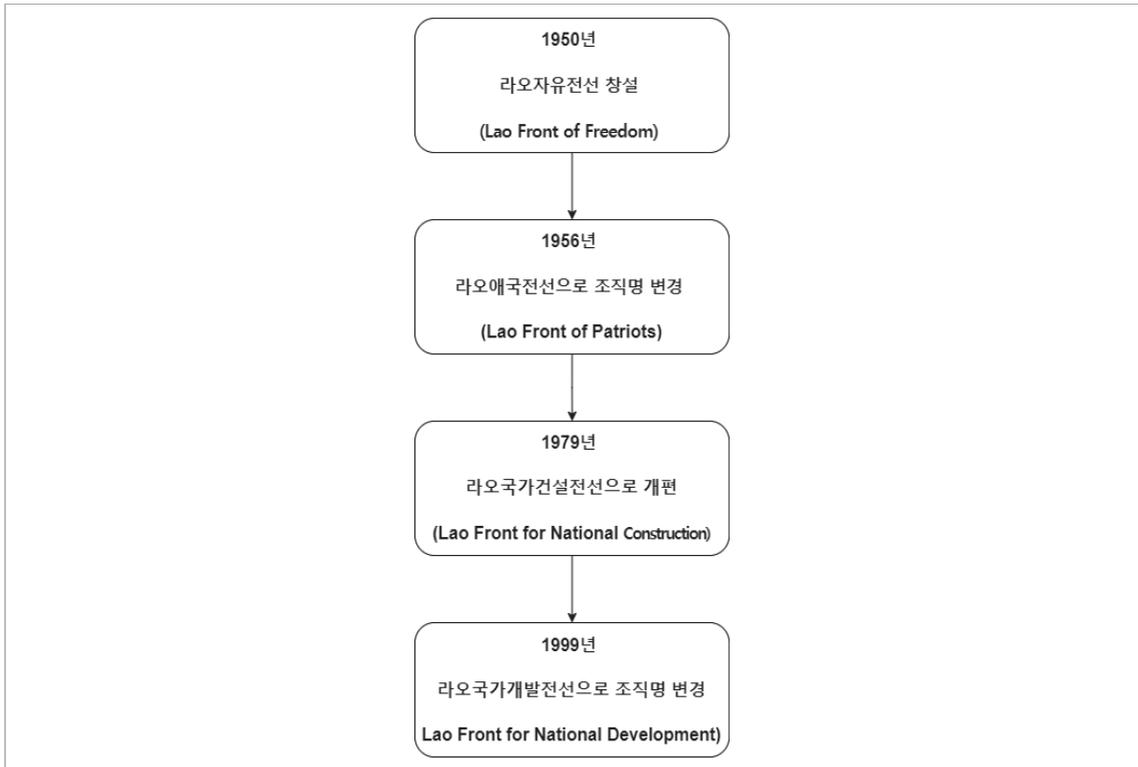
□ 사법제도

- 라오스의 법원은 지방 인민법원-주법원-최고인민법원으로 구성
 - 재판심급제도는 3심제로,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모두 심판하는 사실심은 항소심까지로 국한하고 상고심에서는 법률 문제만을 심판하는 법률심만 진행
- 재판은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법률고문평의회가 국선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함
- 검찰청은 독립기관으로 중앙 최고인민검찰청 및 주/군별 지방검찰조직으로 구성

□ 정당 및 주요 단체

-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 1930년 창설된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모델로 1995년 3월 결성
 - 당원 수는 약 30만 명이며,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2021년 제11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 71명*, 예비위원 10명을 선출
 - * 71명의 중앙위원 중 12명이 여성의원
 -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치국원(Politburo)은 13명으로 구성
 - 당의 기본 노선은 인민민주제 확립을 통한 라오스 평화, 독립, 단합, 번영임
 - 중앙위원회 외에도 주/군/마을 등 행정구역별로 지방위원회가 있으며, 전당대회(National Congress)는 매 5년, 당 중앙위원회는 연 2회 개최
 - * 전당대회 및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의 지도 방침, 당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함
-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
 - 라오스 사회주의 정부 수립 후, 전신인 라오애국전선을 대체해 1979년 창설되었으며, 라오스의 평화, 독립, 사회주의 건설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라오국가개발전선 연혁〉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도식화

- 라오인민혁명당의 활동을 돕는 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 △지역주민 협동조합 조직, △정신 개혁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농촌 지역 개발, △민족 간 통합 도모를 위한 다민족 협동조합 형성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

□ 라오스 정부 동향

- **2024년 5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실 수석장관, 기획투자부 장관, 농림임업부 장관, 내무부 장관 등 4명의 장관 교체**
 - 총리실 수석장관(Minister and Head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으로 Bouakhong Nammavong, 기획투자부 장관으로 Phet Phomphiphak, 농림임업부 장관으로 Linkham Duangsavanh, 내무부 장관으로 Vilayvong Bouddakham 임명
- **총리실 장관 신규 임명**
 - 총리실 수석장관 외 Sinava Souphanouvong 장관(2024년 2월), Khamjane Vongphosy 장관(2024년 5월) 임명

나. 경제 환경

□ 3고 현상(高환율, 高물가, 高대외부채) 지속으로 경제 피로도 심화

- **중앙은행 및 사설시장 모두 2024년 평균환율(9월 말 기준) 달러당 21,000킵 상회**
 - 유가 상승,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 재정 악화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중앙은행 및 사설시장 각각 작년 9월, 7월부터 달러당 20,000킵 돌파 후 고환율 유지
 - 지난 6월, 실질적인 환전이 발생하는 사설시장 환율이 달러당 26,000킵까지 상승하며 전례 없는 환율 고점 기록 후 현재 22,000킵 선에서 답보
- **라오스 정부의 현지화 킵 사용 캠페인 독려**
 - 중앙은행은 '라오스에서는 킵만을 사용하라'(In Laos, use only the kip)는 슬로건 아래 상품, 서비스 결제 시 킵으로 지출할 것을 독려
 - 실제로 라오스 일부 상점은 '#saveLaoKip'을 외치며 킵 화폐만 받거나 미국 달러나 태국 바트 등 외국 화폐에 대해 현저히 불리한 환율을 적용
 - 그 외 정부는 외화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생산이 가능한 수입품 제한, 사치품에 대한 수입 쿼터 축소 등의 규제를 병행
- **인플레이션율은 작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정부의 한 자릿수 진입 목표 미달**
 - 낮은 국내 생산성, 수입 물가 상승 등으로 2024년 9월 기준 21.7% 기록
 - * 라오스 중앙은행 고시 인플레이션율 : ('21) 3.7% → ('22) 23.0% → ('23) 31.2% → ('24.9월) 21.7%
 - 라오스 통계국에 따르면 생활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 8월 242.49에서 지난 9월 245.77로 지속 상승 추세
 - * 항목별 인플레이션율 : 헬스케어·의료품(41.7%), 호텔·요식업(35.3%), 관리비(수도, 전기, 가스 등)(32.5%) 등
 - ADB 보고서는 정부의 긴축 통화 정책과 엄격한 외환 관리 강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율이 2024년 25%에서 2025년 21.5%로 다소 하향될 것으로 예측
- **라오스의 2023년 대외 공공부채(Public and Publicly guaranteed debt stock)는 GDP 대비 108%로 약 129억 달러 규모**
 - 라오스 재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력 발전소, 전력망 등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주로 중국, 태국, ADB, 세계은행에서 자금 조달
 - '23년부터 '28년까지 연간 약 13억 달러 부채 상환 예정이며, 중국이 라오스 총부채의 약 50%를 차지
 - 높은 공공부채와 약한 상환능력으로 인해 태국 신용평가기관(Thai Rating and Information Services)은 라오스 국가 신용 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 → 사실상 라오스 정부 및 국영기업에 대한 태국 채권 시장으로의 접근을 폐쇄

다. 산업 환경

□ 광산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함께 광산 프로젝트 관리 강화

- 광물은 외화 수입원 중 하나로, 관리 부실에 따른 외화 유출 방지
 - 신규 광산 허가를 중단하는 한편, 단순 채굴 대신 가공·제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려
 - ADB 보고서에 따르면 금괴, 금광, 철광석, 칼륨 등을 중심으로 2023년 광물 생산량이 증가하여 라오스 무역흑자에 기여
 - * 올해는 후아판(Huaphan)주에서 2,281톤 이상의 희토류를 채굴 후 가공·수출하여 1,300만 달러 이상의 수익 창출

□ '라오스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산업 활황

- 관광 인프라(관광지, 관광지 주변 도로, 관광 인력 등) 개발로 관광객 수 증가
 - 올해 7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 230만* 명 유치, 연말까지 390만 명까지 증가 기대
 - *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7억 달러 이상의 수익 창출
 - 비엔티안시-방비엥 고속도로, 라-중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관광객 수 크게 증가
 - * 비엔티안 타임즈(4.22)에 따르면 2023년 4월 개통 이후 87개국 약 15만 명의 사람이 이동
 - 특히 중국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여 2024년 1분기 기준 3위
 - * ('22년) 45,000명 내외 → ('23년) 641,314명 → ('24년 1분기) 242,404명

〈2024년 1분기 상위 9개 국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

국가	외국인 관광객 수(명)	비중(%)
태국	347,595	33.4
베트남	264,710	25.4
중국	242,404	23.3
한국	105,642	10.1
미국	25,455	2.4
프랑스	20,339	2.0
영국	14,276	1.4
러시아	11,805	1.1
독일	9,523	0.9

자료: 비엔티안 타임즈

• **비자 면제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라오스 정부의 노력**

-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생겐비자 방식*의 단일 관광비자 도입 추진
 - * 생겐 협정을 맺은 나라 중 한 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생겐 협정국인 다른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추가 비자 신청 없이 관광 가능
- 관광산업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관광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비자 체류 기간 연장, 복수비자 발급 등 다양한 형태의 비자 행정 편의성 제고 노력
 - * 불안정한 거시지표에도 관광, 운송, 물류산업의 성장으로 라오스 정부는 2024년 상반기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

□ **풍부한 수력 자원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배터리로서의 입지 강화 노력**

• **라오스 전력산업 현황**

- 라오스 수출 품목 1위는 전력으로, 발전 형태별로는 수력발전 비중(82.89%)이 높음
- 2023년 라오스전력공사를 통해 인근국에 총 4,241GWh를 수출했으며, 캄보디아로의 수출이 가장 많음
 - * 국별 수출 비중 : 캄보디아(60.3%), 태국(35.1%), 미얀마(2.3%), 싱가포르(2.0%), 중국(0.4%)

• **국내 전력 생산 촉진 및 인접국에 대한 전력 수출 증대를 목표로 종합 국가전력개발전략 수립**

〈2030 국가전력개발전략〉

연번	전략	세부 전략
1	국내 전력 자원 개발	국내 소비 및 수출을 위한 혼합 전력 생산 활용
2	전력 발전 형태 재구성	국내 소비용 전력의 75%는 수력, 14%는 화력, 11%는 재생에너지로 구성
3	전기 보급 시스템 구축	2020년까지 95%, 2025년까지 98%, 2030년까지 100%
4	수출 전력 생산 촉진	인접국 간 전력 교환 장려
5	메콩강 유역 내 전력 수출	ASEAN 전력망 활용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LTMS) 전력 통합 프로젝트 지원
6	전기차 촉진	2025년까지 전기차 비율 15%, 2030년까지 30%

자료: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총에너지의 30%까지 증대**

- 동남아 권역 내 에너지 허브로 부상하고자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 형태별 프로젝트 현황〉

진행 단계	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프로젝트 수	발전 용량 (MW)	프로젝트 수	발전 용량 (MW)	프로젝트 수	발전 용량 (MW)
기존	83	9,768.6	12	73	0	0
공사 중	21	1,259.3	0	0	0	0
인증	18	2,466.2	4	2,688	1	600
PDA	109	6,431.9	13	873	1	187.2
MOU	245	8,143.4	25	12,147	28	14,150
합계	476	28,069.4	50	15,781	30	14,937.2

자료: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라. 정책·규제 환경

□ 외화 부족에 따른 신차 수입 일시 금지 발표

- 라오스 산업통상부 상임비서국은 수입 억제 조치의 일환으로 신차의 일시적 수입 제한 조치 발표
 - CIF 가격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차량(연료, 하이브리드 시스템(연료와 전기), 전기, 기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육상 차량)의 수입 일시 중단
 - 수입업체는 제조회사의 공식 대리점 지정이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차량 금액과 상관없이 차량을 수입할 수 없으며, 수입 차량의 기술 수준과 품질을 검사하는 조치를 거쳐야 함
 - * 2024년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대체 통지가 발행될 때까지 유효
 - CIF 기준 5만 달러 이상의 차량 수입이 정부, 대사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적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정부의 검토 및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승인

□ 라오스 중앙은행, 2023년부터 강력한 긴축통화정책 실시

- 라오스 중앙은행은 올해만 세 번에 걸쳐 큰 폭의 금리 인상 단행
 - 곱화의 가치를 높여 환율 및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
 - 곱/달러 환율이 안정될 경우 라오스 현지 기업들의 수입 부담이 경감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줄였던 수입량이 기존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시기	실행 정책	주요 내용
'23.2	긴축통화 (Tight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금 비율 : 깎(5.5%), 외화(8%) *정책금리 7.5% ■ 기준환율(BOL)에 대한 시중은행 환율변동폭 ±7.5%
'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금 비율 : 깎(8%), 외화(10%) *정책금리 7.5% ■ 기준환율(BOL)에 대한 시중은행 환율변동폭 ±7.5%
'2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금 비율 : 깎(8%), 외화(10%) *정책금리 8.5% ■ 기준환율(BOL)에 대한 시중은행 환율변동폭 ±7.5%
'2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금 비율 : 깎(8%), 외화(10%) *정책금리 10.0% ■ 기준환율(BOL)에 대한 시중은행 환율변동폭 ±7.5%
'2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금 비율 : 깎(8%), 외화(11%) *정책금리 10.5% ■ 기준환율(BOL)에 대한 시중은행 환율변동폭 ±7.5%
'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준비금 비율 : 깎(8%), 외화(11%) *정책금리 10.5% ■ 기준환율(BOL)에 대한 시중은행 환율변동폭 ±7.0%

□ 라오스 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할 긴축재정정책 실시

- 라오스 재무부, 세수 수입 증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7%→10%)

- 환율 상승에 따른 공무원 수당 증가, 정부부채 상환 등으로 라오스 정부의 재정적자가 2022년 GDP 대비 0.2%에서 2023년 2.0%로 증가
- 2024년 5월부터 라오스 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새로운 부가가치세를 적용

□ 라오스 ESG 관련, 정책·규제 미비하나 중요성은 인식

- 범세계적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환경 분야(E) 관련 정책·법령 발표

- 온실가스 저감 15%, 국토의 70% 산림화, 에너지 소비 1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 47.6억 달러 투자를 계획 중
- * 자체 정부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외 편당에 의존 중
- 정부는 유류 수입 수율을 줄이고 친환경을 지향하기 위해 자동차를 2025년까지 1%, 2030년까지 30% 전장화(공공사업교통부 발표)

※ 민간기업 투자 사례

- 현대/기아자동차 조립생산 및 자체 브랜드(대한 등) 자동차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코라오그룹(LVMC)은 2023년 3월 쿡콕메가마트 개설과 함께 리테일 분야 진출
- 코라오그룹은 코코넛사일로와 함께 LSM(Lao Smart Mobility)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자동차 제조 역량과 전국 유통망, 소매유통업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쿡콕무브) 기반의 딜리버리 서비스 제공 중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충전소 설치사업도 증가 추세

* 운송업체 LOCA는 현재 20개 EV 급속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40개, 2026년까지 100개의 EV 충전소를 확대·설치할 계획

- 사회적(S) 기여 분야는 라오스에 대한 유/무상 ODA 프로그램 중심으로 코이카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을 통해 개도국 자립을 지원
- 거버넌스(G) 분야는 아직까지 ESG 공시 의무가 없으며, 특기할 만한 이슈가 없음

2. 시장 분석

- ※ 제조업이 미약하여 대다수의 생필품 및 소비재 등을 수입에 의존
- ※ 2023년 라-중 고속철도 개통으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 1순위 교역국 태국과의 격차 감소
- ※ 풍부한 광물자원과 정부의 광산 개발 노력으로 원자재 공급망의 대안처로 부상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주변국에 의존적인 시장 구조

- 2023년 기준 라오스 전체 교역액의 86.1%는 태국, 중국, 베트남이 차지
 - 국가별 상위 3위 교역 점유율은 태국(39.6%), 중국(37.1%), 베트남(9.5%)
 - 특히 전년 대비 태국과의 교역은 일부 감소한 반면, 對중국 교역이 3배 이상 증가하여 무역 동향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
- 세 국가 모두 라오스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며, 특히 태국은 라오스와 언어가 70% 유사하고 경제교류가 활발해 오랫동안 금융, 유통 등 많은 경제 분야에서 라오스 시장을 지배적으로 점유하고 있음

□ 주요 시장 이슈

- 라오스 국영 매체(Lao News Agency)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라오스의 인구는 약 759만 명이나 국토는 한반도의 1.1배로 인구밀집도가 낮으며, 수도인 비엔티안특별시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불과해 '규모의 경제' 실현에 한계 존재
 - * 한국 인구밀도는 515명/km²인 반면 라오스 인구밀도는 32명/km²
- 주요 국제기구(World Bank, IMF, ADB) 및 신용평가기관(Moody's, Fitch Ratings)은 라오스 공공부채 문제를 우려하며, 투명성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조언

〈주요 시장 특성 및 가치〉

요소	주요 영향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9만 명의 인구 중 15~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0% • 2023년 기준 1인당 평균 연소득은 약 1,832달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높은 공공부채(라오스 재무부 발표, 2023년 GDP의 108%) 등으로 내수 소비 심리 위축 • 외환 보유액 증대를 위해 수출입 전용 계좌 개설, 외환거래 플랫폼 출시 등 외환 흐름 관리 강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라오스 산업 구조는 광산 개발, 전력 발전, 식품 가공 등 소수 분야에 국한 • 관광, 의료, 농업, 교육 분야 등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장려
외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빅스텝 달러 인상, 러-우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따른 현지화 가치 절하 • 산업단지 개발,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참여 등 중국발 외국인 투자 증가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스마트 금융,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분야 개발 노력 • 높은 모바일 보급률(총인구의 88.5%), 인터넷 사용률(총인구의 66.2%), 소셜 미디어 이용률(총인구의 48.8%)(출처: State of Digital in Laos, 2024년 기준)

자료: 라오스 통계청

나. 교역

□ 라오스 대외교역 동향

- 라오스 교역규모는 2020년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
 - 2019년 전 세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2023년까지 흑자 유지
 - 다만 라-중 고속철도 개통 이후 對중국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감소
 - * 對중국 라오스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은 2022년 11.8%, 2023년 41.9%
- 라오스 상위 수출 품목은 전력과 광물(연화칼륨, 금, 철광, 구리)로 각각 전체 수출금액의 21.5%, 24.8% 차지**
 - 전력은 라오스전력공사나 수출용 단독 전력 생산 업체(IPPs)를 통해서만 공급·판매가 가능하며, 주로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수출
 - 기획투자부는 2021~2025년간 7조 8,320억 달러 규모의 광물자원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하여 광산 개발 및 수출 강세 유지 예상
- 매년 유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으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발전기 부분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대중교통이 열악한 만큼 자동차, 오토바이 이용률이 높아 석유 의존도가 높은 편
 -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외화 부담을 줄이고자 모빌리티 전장화* 추진 중으로 관련 장비·부분품 수입 증가
 - * 2025년까지 전체 자동차 대비 전기차 비중 1%, 2030년에는 30% 이상 확대 목표

〈5년간 라오스 무역 거래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1~9월
수출	61.5	66.0	83.5	99.0	99.3	75.4
수입	69.1	60.0	69.4	82.2	92.6	65.5
무역수지	△7.6	6.0	14.1	16.8	6.7	10.0
교역	130.6	126.1	152.9	181.3	192.0	140.9

자료: Global Trade Atlas 미러데이터

• 수출대상국 상위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이 꾸준히 위치

- 라-중 고속철도 등 물류 인프라 개선으로 중국이 태국을 제치고 2023년 1위 수출국으로 부상

〈최근 5년 라오스 상위 10대 수출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1~9월	증감률	국별 비중
중국	2,157.0	2,088.3	2,673.8	3,358.8	3,755.8	3,258.0	11.8	41.0
태국	2,568.7	2,994.9	3,251.2	3,346.7	2,996.6	1,899.8	△10.5	32.7
베트남	465.8	425.0	829.7	1,066.7	1,168.1	821.3	9.5	12.7
호주	17.5	94.7	358	352.1	365.2	272.2	3.7	4.0
미국	149.0	106.6	219.8	273.6	305.4	327.3	11.6	3.3
일본	159.0	128.8	130.3	189.2	164.7	108.1	△12.9	1.8
독일	116.2	110.7	132.7	160.2	146	145.1	△8.8	1.6
한국	39.1	43.9	48.7	85.2	92.9	76.3	9.0	1.0
인도	2.6	2.1	0.8	55.9	92.3	33.1	65.2	1.0
스위스	57.5	49.2	138.2	100.7	84.8	152.9	△15.8	0.9
전체 수출액	5,732.4	6,044.2	7,783.2	8,888.4	9,171.8	7,094.1	3.2	100.0

주: 증감률은 2023년 전년 대비 증감률, 국별 비중은 2023년 기준이며 국별 비중의 합은 상위 10대 수출대상국 전체 금액과 동일
 자료: Global Trade Atlas 미러데이터 사용

• 라오스의 상위 3대 수입대상국은 태국, 중국, 베트남으로 각각 국별 점유율은 49.7%, 36.3%, 7.0%

- 농축산물 수입 억제 등 자국산 대체 노력으로 2022년 대비 2023년 수입 증가 속도 감소

- 한국은 상위 5위 수입 국가로서 비중은 낮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아 라오스 내 한류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

〈최근 5년 라오스 상위 10대 수입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1~9월	증감률	국별 비중
태국	3,836.3	3,326.2	3,927.3	4,495.2	4,601.1	2,979.1	2.4	50.8
중국	1,762.5	1,491.3	1,637.0	2,370.7	3,364.3	2,797.7	41.9	37.2
베트남	801.3	665.6	640.5	578.2	649.1	329.4	12.3	7.2
일본	95.8	147.4	129.0	102.0	115.0	60.2	12.8	1.3
한국	75.4	49.8	70.5	64.3	101.2	73.5	57.3	1.1
싱가포르	53.4	26.8	62.7	95.9	68.4	47.4	△28.7	0.8
독일	23.6	57.6	32.7	37.7	51.8	22.0	37.3	0.6
미국	17.1	24.6	33.5	40.5	46.6	31.1	15.1	0.5
말레이시아	8.1	13.4	27.2	214.5	29.5	8.2	△86.2	0.3
브라질	1.6	1.0	0.3	1.4	27.9	17.6	1,933.0	0.3
전체 수입액	6,675.1	5,803.7	6,560.4	8,000.4	9,054.9	6,366.2	13.2	100.0

주: 증감률은 2023년 전년 대비 증감률, 국별 비중은 2023년 기준이며 국별 비중의 합은 상위 10대 수입대상국 전체 금액과 동일
 자료: Global Trade Atlas 미래데이터 사용

□ 비관세 장벽 애로 현황

- 반덤핑 등 규제는 미시행 중이나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 제한 정책을 한시적 시행
 - 상품 및 서비스의 60~70%가 수입되어 환율 변동이 수입 가격에 직접적으로 타격
 - 지난 6월 발행된 정부 공지에 따르면 라오스에서 생산이 가능한 농산품의 수입에 대해 국경 검역 강화 예고
 - * 쌀,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염소, 오리, 닭고기), 가축(소, 돼지, 염소, 닭, 오리), 달걀 등
 - 그 외 CIF 가격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차량의 수입을 올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
- 일부 세관에서 무상 샘플의 통관을 계류하고 관세를 요구하는 등 자의적 애로사항 발생
 - 라오스의 세수 부족 및 인사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라오스 자원 공급망 동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국으로서 라오스의 주요 효자 수출 품목으로 자리
 - 광물 매장량은 146억 톤으로 추정되어 현행 519개소의 광물자원 산출지 분포
 - 주요 채굴 광물로는 금, 구리, 철, 은, 알루미늄, 주석, 희토류 등이 있으며, 비금속 광물로 석탄, 갈탄,

칼륨, 보크사이트 등이 분포

- 중국이 대부분의 광물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라오스에서 비료 원료로 쓰이는 염화칼륨, 알루미늄 등을 주로 수입

- **무분별한 광산 개발 및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 광물 개발에 대한 신규 투자의 허용을 일시적 중단**
 - 현재 968개 회사에 광산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일부 광산 회사는 승인 획득 후 세금 미납, 프로젝트 재양도를 통한 부당 이익 취득 등의 문제 발생
 - 에너지광산부는 광산 회사의 운영을 평가 후 C(불량) 또는 D(용납 불가)를 받은 회사는 운영을 중단시킬 예정
 - **광물 원자재 수출 외 광물 제련을 통한 수익성 제고 노력**
 - 낮은 기술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의 광물이 원자재 형태로 수출
 - 금, 구리 채굴 및 제련까지 가능한 기업은 아직까지 많지 않으며, 중국 투자기업 두 곳*이 대표적
- * PanAust 유한회사, Lane Xang Minerals 유한회사

다. 투자

□ 라오스 외국인 투자 진출 동향

- **라오스는 2000년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경제특구를 지원 중**
 - 2024년 현재 라오스 정부가 승인한 경제특구는 12개소이며, 2024.5월까지 총 1,151개사가 입주
-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라오스 누적 투자 프로젝트는 총 5,154건이며, 누적 투자금액은 총 490억 달러에 달함**
- **무분별한 프로젝트 발굴 및 낮은 수행 의지로 프로젝트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프로젝트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지시**
 - 라오스 투자 유치, ODA 및 Concession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기획투자부는 광물자원 개발 등 해외 기업들의 관심은 높지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화가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해 선별 강화
- **2023년 프로젝트 건수 기준 라오스 투자 상위 3개국은 중국, 한국, 태국**
 - 광물, 인프라(도로, 철도, 교통, 제방 등) 건설 등이 활발히 진행 중

〈라오스 투자 상위 10개국 (2023년)〉

(단위: 건, 천 달러, %)

순위	투자국	프로젝트수	금액	건수 비율
1	중국	44	1,255,175	55.0
2	한국	11	148,856	13.8
3	태국	8	1,432,647	10.0
4	베트남	6	32,193	7.5
5	싱가포르	4	40,118	5.0
6	호주	1	50,000	1.3
7	영국	1	31,280	1.3
8	말레이시아	1	26,178	1.3
9	캄보디아	1	898	1.3
10	일본	1	71	1.3
전체 외국인 투자		80	3,066,407	100

주: 작성일 기준 최신 통계자료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재가공

• 對라오스 투자는 광산 분야(44.29%) 및 에너지 분야(43.71%)에 집중

- 중국 기업이 희토류 등 라오스 내 광물자원 확보를 위해 라오스 광물 개발 국영기업과의 합작 등을 통해 광산 투자 활발
- 전력 발전 분야에는 13.4억 달러(2023년 기준)가 투입되었으며, 라오스 정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 따라 투자 금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23년 분야별 투자 금액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분야	금액	비율
1	광산	1,358,000	44.29
2	전력 발전	1,340,301	43.71
3	서비스	264,681	8.63
4	제조/수공업	69,753	2.27
5	금융	26,178	0.85
6	농업	3,298	0.11
7	공중보건	2,677	0.09
8	교육	1,519	0.05
전체 외국인 투자		3,066,407	100

주: 작성일 기준 최신 통계자료
 자료 : 라오스 기획투자부 재가공

□ 한국의 對라오스 투자 현황

- 한국은 2023년 對라오스 투자에서 두 번째로 많은 투자 건수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
 - 전력 발전(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금융업(자동차 리싱, 마이크로파이낸싱 등), 건설업 관련 진출 기업 분포
 -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 수 증가, 한국 수출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관광 서비스업, 기술 및 어학 교육 등의 투자도 활발
- 포스트 베트남 라오스,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부상
 - 정치적 안정성, 낮은 인건비, 풍부한 원자재를 바탕으로 생산기지 이전 및 확장을 위한 국가로 관심 증대
 - 미약한 제조 인프라, 인력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언어 장벽, 비관행적 행정 절차 등이 투자 진출 애로로 작용

라. 건설 플랜트 분야 유망 프로젝트

□ 라오스 물류 허브화 정책 추진 가속화

- 아세안 역내 연결성을 강화하는 동남아시아경제회랑(Southeast Asia Regional Economic Corridor and Connectivity)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화
 -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무역 확대를 목표로 기존 고속철 프로젝트에 더해 도로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촉구
 - 세계은행은 북부 지역 동서회랑 추진에 1.3억 달러 지원 예정
 - 공공사업교통부는 동남아시아경제회랑 중 Multi-Mod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프로젝트를 호주 정부 ODA를 통해 추진

※ Multi-Modal Transport Development Strategy 관계자 간 1차 회의(2024년 1월)

- 드라이포트 확장 및 관리 방안(드라이포트 구축 시 중요한 요인 연구)
- 지역 간 이동 화물 카테고리 및 물동량 파악
- 다양한 교통을 통한 역내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 물류센터 도입 수요 파악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양국 교역 현황

- 한-라 간 교역은 2022년 무역적자에서 한 해 만에 무역흑자로 전환

- 2023년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은 1억 119만 달러(전년 대비 57.3% ↑, 한국무역협회), 수입은 9,289만 달러(9.0% ↑)로 무역수지는 830만 달러 흑자

- * 2022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1.5억 달러이며, 對라오스 수출은 6,433만 달러, 수입은 8,524만 달러로 2,091만 달러 적자

〈한국의 對라오스 무역 통계〉

(단위: 백만 달러, 증감률(%))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1~9월
수 출	126 (-25.8)	92 (-27.1)	84 (-8.9)	75 (-10.7)	50 (-34.0)	71 (41.6)	64 (-8.8)	101 (57.3)	74 (3.2)
수 입	23 (-20.0)	27 (20.2)	30 (10.2)	39 (29.9)	44 (12.1)	49 (11.1)	85 (74.9)	93 (9.0)	76 (1.2)
무역수지	103	65	54	36	6	22	-21	8	-3
총교역액	149	119	114	114	96	120	150	194	150

주: '24년 9월 기준 라오스는 우리의 수출 108위, 수입 93위, 교역 112위 파트너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 동향

- 공공 인프라(철도, 공항 등)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에 따른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등이 수출 호조 품목

-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준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발 활발

- 라오스 타켓(Thakhek)-베트남 봉양(Vung Ang) 고속철 건설, 전기버스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프로젝트 등이 진행 중

- 고환율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에도 스킨케어제품은 꾸준한 한국 수출 호조 품목

- K-아이돌, K-드라마 등으로 미백과 피부 영양에 대한 관심 증가

- 소셜 미디어(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등)를 통한 K-화장품 바이럴 마케팅 효과적

〈최근 3년 한국의 對라오스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MTI 코드	품목명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741	자동차	24,242	183.7	27,463	13.3	48,705	77.3
725	건설광산기계	3,562	98.1	8,529	139.4	20,934	145.5
742	자동차부품	4,173	-70.3	3,828	-8.3	4,997	30.5
227	비누·치약및화장품	7,135	77.4	2,021	-71.7	4,010	98.4
016	농산가공품	2,125	34.6	2,668	25.6	3,948	48.0
221	염료및안료			-	-	1,823	-
226	농약및의약품	1,885	105.9	1,980	5	1,625	-17.9
133	석유제품	1,367	30.1	1,016	-25.7	1,453	43.0
320	고무제품	1,077	1.5	1,353	25.6	1,447	7.0
015	기호식품	891	61.9	1,105	24.0	1,280	15.9
449	기타섬유제품	931	59.8	252	-73.0	880	249.5
011	곡실류	1,674	40,403.8	253	-84.9	862	239.9
617	주단조품	534	18.9	693	29.7	809	16.7
835	건전지·축전지	1,789	-5.1	1,018	-43.1	660	-35.1
434	인조장섬유직물	711	30.5	1,240	74.5	596	-52.0
024	축산가공품	200	104.2	113	-43.3	481	324.1
813	컴퓨터	9,715	3,972.3	293	-97.0	481	64.1
512	가구	357	-27.4	298	-16.5	417	40.1
014	식물성재료	259	10.0	256	-0.9	371	44.7
046	수산가공품	223	3.2	245	9.6	360	47.2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4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라오스 상위 20대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MTI 코드	품목명	2023년 1~9월		2024년 1~9월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741	자동차	35,118	40.3	33,127	△5.7
725	건설광산기계	15,982	102.4	8,482	△46.9
016	농산가공품	4,012	37.8	3,493	21.2
227	비누·치약및화장품	2,882	61.9	3,351	27.0
742	자동차부품	2,638	62.3	2,720	△32.2

MTI 코드	품목명	2023년 1~9월		2024년 1~9월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28	정밀화학원료	1,113	28.4	2,499	15,960.5
226	농약및의약품	1,031	0.7	1,895	157.9
024	축산가공품	958	16.8	1,617	605.2
735	토지측량기	735	△48.7	1,532	24,284.9
449	기타섬유제품	612	△5.3	1,318	223.7
015	기호식품	451	△51.5	1,003	4.7
133	석유제품	411	84.5	910	△18.2
221	염료및안료	407	67.4	869	172.9
441	의류	329	△51.9	756	3,024.6
813	컴퓨터	318	-	738	601.2
835	건전지·축전지	300	79.7	727	61.0
521	신변잡화	290	4,102.9	620	4,136.0
617	주단조품	264	16.8	581	△5.0
812	무선통신기기	255	34.8	561	1,026.0
434	인조장섬유직물	229	230.9	557	35.4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對라오스 수입 동향

- 한국의 對라오스 수입은 9,289만 달러로 라오스는 한국 수입대상국 91위

- 한국의 수입대상국으로서 라오스가 2021년 106위, 2022년 98위를 차지했음을 고려할 때 양국 간 교역 중요도 증가 시사
- 목재, 의약품, 온도계, 신발, 알루미늄 스크랩 등이 주요 수입 품목

- 글로벌 공급망 위기 관련 품목 수입 증가 추세

- 2023년 목재류, 알루미늄 스크랩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칼륨비료는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입 제한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가 약해지면서 감소

〈한국의 對라오스 주요 원자재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칼륨비료	목재류(백탄)	목재류(성형목탄)	알루미늄 스크랩
2022년	28,188	19,343	180	1,285
2023년	25,273	30,486	576	1,418
↳ 전년 대비 증감률	↳△10.3%	↳31%	↳766.2%	↳10.3%
2024년 1~9월	16,921	20,460	279	38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4.0%	↳△16.2%	↳△46.1%	↳△97.0%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3년 한국의 對라오스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MTI 코드	품목명	2021		2022		2023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031	목재류	25,231	15.9	35,120	39.2	51,222	45.8
226	농약의약품	-	7.7	28,188	33,557.4 70.2	25,276	-10.3
815	계측제어분석기	7,090	21.1	9,312	31.3	7,300	-21.6
521	신변잡화	2,287	9.7	2,444	6.9	2,390	-2.2
441	의류	1,759	142.7	1,338	-23.9	1,533	14.5
621	알루미늄	992	-3	1,492	50.5	1,456	-2.4
811	유선통신기기	4,114	-5.8	2,686	-34.7	662	-75.3
515	문구및완구	561	37.2	1,329	136.9	638	-52.0
833	수동부품	50	1.3	8	-84.3	385	4,840.0
622	동제품	406	-	-	-100.0	287	-
228	정밀화학원료	-	-67.2	-	-100.0	282	-
227	비누·차약및화장품	33	-30	42	26.3	276	558.9
747	항공기및부품	-	-	-	-	176	-
012	산식물	57	115.9	219	284.5	164	-25.1
812	무선통신기기	256	246.5	484	88.8	159	-67.1
133	석유제품	7	-89.6	-	-100.0	128	-
518	패션잡화	15	1,027.30	86	455.9	112	30.5
251	제지원료	93	-10.8	-	-100.0	96	-
015	기호식품	1,695	24.5	694	-59.1	83	-88.1
822	음향기기	199	-38.5	219	9.8	73	-66.6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4년 9월 기준 한국의 對라오스 상위 20대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MTI 코드	품목명	2023년 1~9월		2024년 1~9월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031	목재류	40,794	58.5	36,023	△11.7
226	농약의약품	22,276	△15.9	16,921	△24.0
815	계측제어분석기	5,392	△23.0	6,900	28.0
132	석탄	1,791	△4.2	6,633	-
290	기타화학공업제품	1,323	△1.9	2,652	88,387,700.0
521	신변잡화	1,192	14.3	1,639	△8.5
515	문구및완구	458	△80.3	995	175.0
441	의류	362	△63.7	743	△34.3
811	유선통신기기	287	-	702	53.4
625	연제품	282	-	664	-
623	니켈제품	275	820.5	580	-
221	염료및안료	176	-	279	-
133	석유제품	116	△24.4	228	146.2
511	신변잡화	99	△77.0	214	540.3
012	산식물	97	1,142.0	164	41.6
812	무선통신기기	96	-	150	51.7
122	소금	92	107.0	142	16,512.7
015	기호식품	93	-	123	92.8
621	알루미늄	63	△90.8	114	△91.4
518	패션잡화	47	244.8	93	△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무역협정 체결 현황

- 한-ASEAN FTA 체결로 전체 품목의 84.4% 관세가 단계적 철폐 중
 - 2021년 한국 기업의 한-ASEAN FTA 활용률은 FTA 중 3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52%)
- 라오스는 2022.2월부터 한국과 RCEP 협정이 발효됨
 - 한-ASEAN FTA로(8,073개 품목 관세 기 철폐) 관세 추가 철폐 품목은 868개에 불과
 - 단,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등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철폐되어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對라오스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내수기업 수출 성공 사례

- **건강기능식품 유통기업 A사는 인콰이어리 수요 기반 바이어 매칭을 통해 라오스 주요 무역회사에 초도 수출 성공**
 - 거래조건 협상, 물류·통관 안내 등의 밀착 지원을 통해 진출 기회 포착
 - 첫 수출로 현지 물류회사와 협업하여 제품 선적부터 통관까지 원스톱 지원
 - 차별성 있는 제품(여성 질 유래 유산균) 발굴로 긍정적인 소비자 피드백과 함께 연내 추가 수출 협의 중

□ 수출 실패 사례

- **자동차 액세서리 생산기업 B사는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바이어 발굴 희망**
 - 자동차 액세서리 제품은 아직 인지도가 낮은 탓에 바이어가 관심이 있어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소통에 어려움 직면
 -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라오스 바이어 특성상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결정을 재촉해 라오스 바이어 측에서 거래 포기 의사 표명

나. 투자 진출

□ 투자 환경 분석

- **한국의 對라오스 투자는 1992년 법인 설립, 1994년 투자금 송금으로 시작**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기준 2024년 6월 말 누적 신고건수 563건, 176개 신규법인, 13.4억 달러(신고금액) 규모 투자 진출이 이루어짐
 - 초기에는 요식업, 농업 투자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10년간 에너지, 건설, 금융 서비스, 자동차 제조,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

〈최근 5개년 한국의 對라오스 투자 실적〉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신고건수	24	30	18	29	37	30	13
신고금액 (천 달러)	37,323	69,373	1,868	38,765	73,656	36,114	5,474
신규법인수	3	9	3	4	10	9	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투자 진출 기업 성공 사례

- 봉제업종 중견 A사는 베트남에 제조공장이 있으나 라오스에 생산공장을 추가 설립하여 미국에 완성품을 성공적으로 수출
 - 베트남 정부의 노동 허가 및 소방시설 승인 등과 관련한 규제 강화, 높은 인건비 등으로 라오스를 새로운 생산기지로 선택
 - 한국에서 원재료 수입 후 미국에 재수출하는 구조로 무관세 수입 혜택 이용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한-라오스 국가협력전략 및 라오스 제9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출 가능

〈라오스의 개발 중점 분야별 세부 협력 수요〉

분야	중점사항
헬스케어	- 의약품 생산, 수도 병원 현대화 및 지방 병원 기초 보건 역량 강화 - 헬스케어 분야 종사자 수준 향상
디지털 경제	-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을 위한 민간 부문 주도의 경제성장, 이커머스 산업 활성화
디지털 거버넌스	- 전자 민원 서비스, 재난 관리 시스템, 정보 공개 등 전자정부 체계 구축 - 데이터 유출 보호 및 사이버 보안 - 우편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	- 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및 촉진 -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 등 친환경 농업 장려 - 중국 등으로의 농축산물 수출 - 가축사양센터, 바이오 비료 생산시설, 종자연구센터, 현대화된 농업단지 개발 등 농축산물 수출 기반 마련
관광	- 관광 인프라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 개발
에너지	- 폐기물 에너지화 및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
인프라	- 스마트시티, 내륙항,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역사 인근 물류시설 확충 - 방비엥-루앙프라방, 루앙프라방-루앙남타 간 고속도로 건설
산업	- 경제특구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 BOT, PPP 등 민자사업 투자 장려 - 식음료 가공, 의류, 건설, 전기전자, 광물 처리 산업 육성 -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비재 생산
직업훈련 및 교육	- 4차 산업혁명에 맞는 IT 분야, 고숙련 필요 분야 인력 양성



〈한국의 라오스 개발협력 대응 가능 분야〉

분야	협력 가능 사항
헬스케어	- 라오스 제조업 및 헬스케어 분야 육성 협력
디지털 경제	-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디지털 거버넌스	- 전자정부 구축 사업
스마트 농업	- 농업 관련 각종 첨단시설 및 장비 제공, 노하우 전수
관광	- 주요 도로, 철도 개발 지역 관광 개발 특수, 문화재 보존 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
에너지	- 전력 송배전망 사업, 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협력
인프라	- 스마트시티, 제방,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컨설팅·구축
산업	- 경제특구 및 개선 물류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제조설비 투자
인적자원 개발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교육기관, 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공유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G2B, B2B 등

- (G2B) 태국 등 국경 인근 내륙항 연계 한국형 복합산업단지 개발
- (B2B) 디지털 금융, 스마트시티 건설,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 전력 발전, 광물 탐사 및 채굴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희망

-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따라 교육, 농업, 디지털 분야 투자 진출 모색
- ※ 공공 인프라 개발 분위기 속 ODA 연계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
- ※ 관광산업 부상에 따른 관광 소비자 타겟 K소비재 및 프랜차이즈 진출

1.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규제 대상 사업 축소(44개→22개) - 투자 촉진 분야 항목 추가 선정(7개→9개) - 교육, 농업, 의료 부문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외화 부족에 따른 신차 수입 일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산업통산부는 수입 억제 조치의 일환으로 CIF 가격이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차량의 수입을 연말까지 중단 - 엔진, 하이브리드, 전기, 기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육상 차량이 대상 • 라오스 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 세수 증대를 통한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완화
Economic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B가 발표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3.7%이며 2024년, 2025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각각 4%, 3.7% • 유가 상승, 현지화 가치 하락 등으로 중앙은행 및 사설시장 모두 2024년 9월 기준 평균환율이 각각 달러당 24,062꺾, 21,483꺾 기록 • 중앙은행이 발표한 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31.2%, 2024년 9월 21.7%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정부의 한 자릿수 진입 목표(9%)에는 미달 • 재무부 발표 2023년 대외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8%로 '23년부터 '28년까지 연간 약 13억 달러 부채 상환 필요
Social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오스 일부 상점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saveLaoKip 운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깃 화폐만을 사용하거나 태국 바트, 미국 달러 등 외국 화폐 거래 시 현저히 불리한 환율 적용 • 교육체육부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률 위한 응시자 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물가 상승으로 일반 가정의 구매력 하락, 부모의 해외 일자리 취득에 따른 이동 등을 원인으로 분석 -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는 각각 68,850명, 46,744명으로 전년 76,322명, 50,276명에 비해 감소
Technologica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1월 10일을 '라오스 디지털의 날'로 지정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 노력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술 기반 지속 성장 가능한 디지털 경제 구축 2040'을 비전으로 디지털 경제 비중을 GDP의 3%에서 5%로 향상 목표 - 디지털 금융, 스마트시티, E-커머스, 전자정부 구축 등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움직임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
- 한-라 간 기후변화협정 체결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 한류 열풍에 따른 젊은 소비자층 확대 지속
- 한국 제품의 높은 신뢰성과 우호적 이미지
- ODA 연계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높은 수요

약 점(Weakness)

- 높은 물류 운송비, 인접국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 언어·문화적 차이
- 태국 의존적 소비 트렌드
- 적은 인구(약 759만 명)로 인한 낮은 소비 구매력

기 회(Opportunity)

- 디지털 경제 시대 실현을 목표로 전자정부,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 수요 증가, ICT 기업의 S/W 기술 수출 기회
- 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수익 창출

위 험(Threat)

- 연간 13억 달러가량의 공공부채 상환 부담
- 높은 환율 변동성
- 해외 인력 유출로 인한 고용난
- 숙련 노동력 부족, 기초산업 인프라 미비
- 중국의 공격적인 투자로 인한 對중 의존도 심화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유망 탄소 감축 프로젝트 발굴 • 의료·농업·디지털·교육 등 개발 유망 분야 투자 진출 모색 	투자 흐름 모니터링을 통한 유망 산업 진출 구상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ODA(KSP, PPP 등) 사업 연계 진출 시도 • 수원 부처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수요 발굴 	ODA 연계 프로젝트 개발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연계 유망 소비재 발굴 • 대형 유통망 협업 입점 및 프랜차이즈 진출 	대형 유통망 협업, 유망 소비재 입점 및 프랜차이즈 진출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베트남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 포착 • 한국형 제조산업단지를 통한 '규모의 경제' 	'포스트 베트남' 리아스를 제조업 투자 대안처로 모색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투자 흐름 모니터링을 통한 유망 산업 진출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 기반 탄소 감축 프로젝트 발굴 및 기존 프로젝트 간의 연계 가능성 모색 의료·농업·디지털·교육 등 정부의 투자 촉진 분야로의 진출 기회 포착
ODA 연계 프로젝트 개발 및 단계적 성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인프라(건설·도로·철도), 광물 개발 사업 등에 적극 참여 KSP-EIPP-EDCF 등 프로젝트 개발 및 실현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대형 유통망 협업, 유망 소비재 입점 및 프랜차이즈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유통망 활용 유망 품목(가공식품, 스킨케어, 건강기능식품 등) 진출 대형 유통망 내 프랜차이즈 입점 기회 모색 한류 관심도가 높은 젊은 층 및 관광객 등 타깃 맞춤형 마케팅 구상
‘포스트 베트남’ 라오스, 제조업 투자 대안처로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중심축 변동에 따른 신흥 생산기지 발굴 B2G 협력을 통한 한국형 제조산업단지 개발
급변하는 라오스 경제 속 기회 포착	<p>포스트 베트남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 모색과 유망 산업별 한국형 품질·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 선점</p>

3-1. 투자 흐름 모니터링을 통한 유망 산업 진출 구상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라오스 기획투자부,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 분야 인센티브 강화
- ※ 탄소배출권 시행령 제정 및 한-라 간 기후변화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기대감 고조
- ※ ASEAN 주변국 대비 낮은 디지털 경제 성숙도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디지털 경제 전환 노력
 - * 아세안 10개국 중 디지털 경제 성숙도 지표에서 라오스 9위 차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세계은행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기업환경평가(2020년)에 따르면 라오스는 190개 국가 중 154위로, 비관행적 업무 처리와 제도 미비로 외국인 투자 환경이 열악
- 투자 규제 대상 사업을 기존 44개에서 21개로 축소하고 투자 촉진 분야를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림으로써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노력
- 더욱이 투자 촉진 분야 내에서도 농업, 의료, 가공업, 교육 분야 대상 이익세 면제 기간을 늘려 해당 분야로의 투자 유도

• 2040 디지털 경제 구현 비전 수립과 함께 발전하는 디지털 시장

- 디지털 금융, 전자정부, E-커머스 등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은 스마트 교통, 스마트 관광, 스마트 결제 등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로 민관 협력 프로젝트나 유·무상 ODA를 통해 진행
 - * 사례 : 루앙프라방 주정부는 ADB와 함께 루앙프라방 스마트·통합 도시 개발 전략을 수립 중으로 신호 관리, 원격 결제 등을 개별 프로젝트로 추진 중

• 탄소배출권 관련 지침 및 시행령 마련 등 국제 탄소시장 편입을 위한 라오스 정부의 노력

-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지원을 받아 연말까지 탄소시장 전략 및 탄소 프로젝트 지침 도출 목표
- 탄소배출권 시행령 초안* 발표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ITMO 이전을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는 평가
 - * 탄소배출권 관련 용어 정의, 기관별 역할, 탄소배출권 거래 방식 및 절차 등을 규정
-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한-라 간 기후변화협정 체결로 국제 탄소시장의 핵심 공급자로서 성장 기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라오스 정부의 투자 중점 분야(농업, 의료, 가공업, 교육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

- 라오스는 기초산업의 인프라가 미비하고, 인접국과의 임금 격차로 해외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
- 스마트팜, 스마트 의료, 스마트 팩토리, 에듀테크 등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투자 진출을 통해 단순 설비·노동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 경감
- 전 라오스 참파삭 주지사(현 내무부 장관)는 KOTRA 비엔티안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농가와의 상생협력 측면에서도 스마트팜 기술을 보유한 농업 기업을 우대함을 언급

• 투자 촉진 분야 중점 탄소 감축 프로젝트 발굴

- 세계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담당자에 따르면 향후 레드플러스(REDD+), 소수력, 태양광, 매립가스 포집, 제조업 혁신 분야가 유망
- 그 중 에너지광산부는 국가전력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전력 생산 및 수출을 늘릴 것을 강조한 한편,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을 총에너지의 30%까지 높일 것을 발표하여 관련 분야 탄소 감축 프로젝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 태양광 지붕 설치 통한 전력 생산 및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성

- 태양광 지붕 설치 개발 장려를 목적으로 양허 절차를 면제했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회사는 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건물, 공장, 가정 등의 고객과 직접 전력 구매계약 체결 가능
 - 민간이 자체 사용 후 전력이 남는 경우 이를 라오스 전력공사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 EDL이 가정에 kWh당 1,000꺽(Kip)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반면, 가정이 태양광 지붕으로 생산한 전력을 kWh당 500꺽으로 EDL에 팔 수 있도록 승인

〈에너지광산부 Mr. Akhomdeth DPI 국장 인터뷰〉

- 전력 수입을 제한하는 총리령 발표에 따라 지붕 태양광 등을 활용한 전력 생산 수요 증가(현재 ECI*가 설치 및 운영권 독점)
- ECI는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수입하여 개인 주택,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등의 소규모 프로젝트(600kW)를 진행 중
- 한국 기업과의 프로젝트 협업 방향 및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성 설명

* ECI : Electrical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State Enterprise

3-2. ODA 연계 프로젝트 개발 및 단계적 성숙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라오스는 2024년도 아세안 의장국 지위 수임이 확정됐으며, 이로 인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유·무상 프로젝트 유입이 확대될 것이며,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볼 때 한국의 對라오스 ODA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라오스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광물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PPP(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으로, 관련 기회가 증가할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1년 이후 공공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유상 ODA 시장은 위축된 상황이나, 2024년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신규 차관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음

* 한-라 대외경제협력기금 약정을 통해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수자원·교통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 '24~'27년간 5억 달러 지원

- 농경지 조성, 상수/하수처리, 병원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강화 등이 유망
- 라오스 정부 재정 여력이 부족해 향후 민관 합동 프로젝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철도, 도로, 국제공항 등 공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분야의 국내 기업 수주 기회 증가

- 국내 기업 A사는 비엔티안-베트남 봉양 항구 고속철 기본설계, 동남아시아지역경제회랑 프로젝트 중 동서를 연결하는 국도 일부 구간 시공감리 수주
- 국내 기업 B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사업 수주 추진 중

- 에너지 분야에서도 프로젝트 기회 증가

- 에너지광산부는 싱가포르 송전 선로의 규격이 적어(30kV)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국제 송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현행 IEA가 프로젝트를 연구 중으로 한국 참여 요청(에너지광산부 에너지효율국)

- 농업 분야 ODA 사업 개발 및 입찰 수주 노력을 통한 시장 개척

- KOICA,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 개발 ODA 입찰정보 파악 및 ODA 사업 신청
- 국내 기업 C사는 KOICA의 IBS 사업(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KOICA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농작물 시범 재배 후 한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선순환 구조 모색

사업명	기간	사업비 (만 달러)	담당 기관
비엔티안주 농기계 활용도 제고 지원사업	2020~2024	330	한국농어촌공사
라오스 남부 3개 주 농촌개발사업	2020~2024	900	KOICA
라오스 농촌 개발 실행전략 및 중북부 지역 농가소득 증대 시범사업	2021~2025	1,250	
사반나켓주 농촌종합개발사업	2014~	4,600	EDCF

자료: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조사

3-3. 대형 유통망 협업, 유망 소비재 입점 및 프랜차이즈 진출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엔데믹 이후 비엔티안특별시 내 주요 유통업체 점포 수 증가 추세
 - * 작년부터 세븐일레븐, 쿡마켓, 참마트(Chnag Mart) 등 신규 유통마트 오픈
- ※ Bic C 복합쇼핑몰 내 카페, 노래방, 오락실, 음식점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 입점
- ※ 태국 의존적 소비 트렌드로, 태국의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유망 품목 선별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4년은 ‘아세안 : 연결성과 회복력 강화’라는 주제로 라오스가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맡는 해이자 ‘라오스 방문의 해’로서 공무 및 관광 목적의 외국인 유입 증가
 - 엔데믹 이후 올해 최소 4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13억 달러의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2019년 라오스는 480만 명의 해외 관광객을 불러들여 GDP의 9.1%에 해당하는 9억 3,400만 달러의 수입을 관광 분야에서 기록한 바 있음
 - 라오스 정부는 비자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외국인 대상 전자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해외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 관광객 유입은 올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 증가할 것
 -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OneCash Wallet, EzyKip 앱(카드 충전식 QR 결제 시스템) 개발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실내 복합문화여가시설이 시민의 쉼터로 자리 잡으면서 쇼핑몰 내 프랜차이즈 입점 기회 증가
 - 잦은 강수 및 더운 날씨로 실내 복합쇼핑몰에 대한 일반적 수요 존재
 - 더욱이 라오스 국민의 경제력 상승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뒷받침
 - *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라오스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 PPP)은 ('20) USD 7,470 → ('21) USD 7,650 → ('22) USD 8,140 → ('23) USD 8,640
 - 기존 복합쇼핑몰 내 높았던 공실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쇼핑몰 건설 예정으로 패션, 요식업, 레저 분야 프랜차이즈 기업 진출 유망
 - * 코라오그룹은 2025년까지 동독(DongDok), 싸뚜싸이(Patuxay), 돈찬(Donchan) 지역에 대형 메가몰 오픈 계획
- K프랜차이즈를 고려 시 태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성공한 한국 제품이 라오스 소비자의 발걸음을 유인하는 데 유리
 - 태국에 각각 12개, 103개의 지사를 둔 프랜차이즈 기업 BBQ, 나이스투미츄(NICE TWO MEAT U), 치킨업체 분촌은 오픈 이후 소비자들의 인기 음식점 리스트에 안착

3-4. ‘포스트 베트남’ 라오스, 제조업 투자 대안처로 모색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지난해부터 라오스가 포스트 베트남으로서 새로운 유망 생산기지로 주목
 - * 2023년 라오스 내 봉제업종 분야 제조기업 3개사 생산법인 설립 완료
- ※ 중국의 대규모 차관과 투자로 경제적 종속 심화 등 균형 있는 국제관계 필요성 증가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라오스, 매력적인 제조업 투자처로 부상

- 인접국(베트남, 캄보디아)의 노동법 강화, 미얀마의 정세 불안,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모색하는 진출 기업 증가
- 값싼 인건비, 낮은 운영비용(수도세, 전기료 등), 풍부한 전력, 적은 공휴일, 젊은 인구 구조 등이 강점
- 물류 허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 기대
 - * 태국-라오스-중국을 잇는 남북회랑과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을 잇는 동서회랑 철도망 연결이 진행 중

• 중국발 대규모 차관 및 투자로 인한 중국 의존도 심화

- 라-중 고속철도, 비엔티안시-방비엥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 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받아 현재 라오스 총부채의 약 50%가 중국발
- 라오스에는 총 12개의 경제특별구역(SEZ)이 있으며, 그 중 중국이 투자한 SEZ는 총 4개에 달함
 - * Boten Beautiful Land SEZ, Golden Triangle SEZ, Saysettha Development Zone, Thatluang Lake SEZ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원자재 수입-조립·가공-재수출 구조의 생산기지 구축

- 라오스는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일체 재수출한 경우 해당 원자재에 대해 수입 관세를 매기지 않음
- 더욱이 라-중 고속철도 개통으로 비엔티안-쿤밍 간 운송 시간이 2~3일에서 약 30시간으로 단축되고 물류비가 20~40% 절감되어 생산비용 감소 기대
- 국경 간 철도 통관 시간 역시 5시간 이하로 단축되어 때때로 부담해야 하는 ‘급행료’ 문제 해소

• (단기 접근) 금전적 혜택 및 행정 처리 효율성이 높은 경제특구 적극 활용

- 경제특구 입주 기업은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수익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비자 발급 편의 등의 혜택이 주어짐
- 또한 각 SEZ마다 설치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각종 인허가 및 세금 처리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편의성이 높음

* 2024년 현재 라오스 정부가 승인한 경제특구는 12개소이며, '24.5월까지 총 1,151개사가 입주

• (장기 접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라오스 정부에 맞춰 G2B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 협력

- 라오스 내 SEZ에 개발 투자한 국가는 라오스 외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 한국형 SEZ 부재 →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국내 기업이 입주 결정 주저
- 한국형 산업단지 개발 시 투자 절차 용이성 확대 및 '규모의 경제' 실현 기대
- 특히 투자촉진법 개정으로 투자자에 대해 특별경제구역 개발 시 토지 양허 기간 연장(최대 50년 → 70년) 및 추가 연장 허용하여 토지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적극적인 토지 개발 장려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스킨케어	선정사유	- 한류 매체를 통한 한국의 '물광 피부' 인지도 높음 - 포스트 코로나 시기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연평균 15% 성장 중 - 업계에서는 코로나19에도 매출액 3배 증가
	경쟁동향	일본, 태국
	진출방안	- 샘플 공급을 통한 현지 소비자 레퍼런스 필요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태국 방송 및 인플루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태국 내 인지도가 있는 제품 선호 - 한국 제품 인증서, 마케팅 판촉물 등 제공 시 효과
품목명 2		
데일리케어	선정사유	- 글로벌 SNS를 통한 한국 제품 접근성과 관심 증가 - 한국 제품의 기능적 장점에 대한 인지 증가
	시장동향	- 유통 체인의 규모 성장에 따른 제품 차별화 요구 - 기 진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층 및 선호 존재
	경쟁동향	태국, 중국, 독일
	진출방안	- 향, 기능에서 차별점을 가진 제품으로 경쟁력 확보 - 남성 전용 제품에 대한 틈새시장 공략
품목명 3		
뷰티 건강보조제	선정사유	- 태국 매체를 통한 '이너뷰티' 트렌드 유입 - 외모 관리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보조제 불티
	시장동향	- 콜라겐,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제품 인기
	경쟁동향	태국, 일본
	진출방안	- OEM보다는 기존 생산품 위주로 시장 타진 - 바이어에 대한 지원 지속으로 수입량 점진 확대 필요
품목명 4		
기능성 음료	선정사유	-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건강한 제품' 인식 확대 - 삼키는 알약보다 마시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 확산
	시장동향	- 2026년까지 시장 규모는 연평균 9.5% 상승 기대 - 일률적인 제품으로 디자인 및 품질 차별화 요구
	경쟁동향	태국, 중국
	진출방안	- 맛, 패키징 등 차별이 있는 제품 소개 필요 - 온라인 등 제품 홍보를 위한 바이어 협력은 필수

품목명 5		
간편조리식품	선정사유	- 한류 매체를 통해 K-푸드 인지도 높음 - 저렴하고 섭취가 간편한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대형 마트 및 편의점 확장 추세로 진출 기회 증가
	시장동향	- 2028년까지 시장 규모는 연평균 6.32% 성장 기대
	경쟁동향	태국, 독일, 싱가포르
	진출방안	- 맛, 가격, 편리성에서 경쟁력 확보 필요 - 인플루언서 마케팅, 한국 브랜드 콜라보 등의 전략 필요
품목명 6		
건설중장비	선정사유	- 희토류 등 광물자원 소싱을 희망하는 각국(한국, 중국 등) 수요 확인 -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서 광물을 개발하려는 라오스 정부 정책과 맞물려 라오스 내 광산 개발 프로젝트 증가 추세
	시장동향	- 라오스의 전년 대비 건설중장비 수입금액이 86.3% 증가, 그 중 한국은 169.4% 증가
	경쟁동향	중국, 태국, 베트남
	진출방안	- 건설중장비의 단위당 단가가 높음에 따라 금융리스사와 협업하여 상품을 구성할 필요 - 정부 주도 인프라 프로젝트의 공급사로 적극 참여
품목명 7		
자동차부품	선정사유	- 인구 대비 자동차 시장 규모가 큰 국가적 특징 - 시장 규모 대비 적은 생산공장으로 부품 수요 존재
	시장동향	- 품질이 중요한 부품은 한국산에 대한 수요 지속 - 라오스-중국 철도 개통으로 인한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태국, 중국
	진출방안	- 전기자동차 관련 틈새시장 공략 - 중국산 저가 부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품목명 8		
전기 배터리	선정사유	- 라오스 정부는 21년 10월 전기차 도입을 공식 선언 -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목표를 30%로 설정
	시장동향	- 라오스 내 배터리 충전소는 20개로 시작 단계 - 2024년까지 40개, 2026년까지 100개 구축 목표 (공유 자동차 서비스 제공업체 LOCA)
	경쟁동향	- 중국 전기차가 저가 형태로 대량 수입되고 있어 중국산 전기 배터리와의 시장 경합이 예상됨
	진출방안	- 현지 주요 차량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 고려

품목명 9		
비료	선정사유	- 대규모 비료 공장이 없어, 농장에서 퇴비를 직접 만들거나 화학비료를 수입
	시장동향	- 농업 생산량 증가로 비료의 수요 증가 -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 요구
	경쟁동향	태국, 베트남, 중국
	진출방안	- 보수적인 End-user 성향을 고려한 샘플 테스트 마케팅 - 수입 허가 관련하여 유통사와의 원활한 정보 공유 필요
품목명 10		
스낵류	선정사유	- 한류 영향으로 한국 과자에 대한 호기심 증가 - 다양성이 부족한 기존 과자(주로 감자칩) 종류 대비 한국 과자의 다양한 맛과 형태 강점
	시장동향	- 곡물 과자 등 건강 간식 인기 - 브라우니, 파이 등은 패키징·맛 측면에서 고급 과자로 인식
	경쟁동향	태국, 중국, 베트남
	진출방안	- 인접국 대비 높은 가격 단가로 가족형 스낵 팩 구성으로 단가 조정 - 곡물 과자, 천연재료를 넣은 과자 등 자극적이지 않은 건강 간식으로 어린이나 노년층 타기팅

품목명 1		
디지털 서비스	선정사유	- 라오스에는 디지털 서비스가 극히 제한적임
	시장동향	- 디지털 서비스가 점차 인기를 끌고 있으나, 현재 시장에는 일부 분야 관련 서비스만 존재 - 음식 배달 앱 Foodpanda, Chompa Delivery 및 택시 서비스 Loca 등
	경쟁동향	- 일부 IT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를 제외하면 경쟁사가 거의 없음
	진출방안	- SNS 홍보 및 가격 할인 이벤트로 대중 인지도 확보 - 소비자 보호 규정, 보상제도 등 서비스 차별화
품목명 2		
보험	선정사유	- 지속적이고 꾸준한 경제 성장 및 가구 수입 증가로 국민들의 미래 재정 대비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 최근 건강보험, 주택보험, 차량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생명보험시장 연간 성장률은 2022년까지 10~16% 정도로 추산, 비생명보험은 7~11%의 성장을 예측 - 교육이나 장례 등 생활 관련 보험은 아직 생소함
	경쟁동향	- 유럽계, 태국계, 베트남계, 일본계 기업이 라오스 시장에 진출 - Allianz General Laos Bangkok Insurance, Lane Xang Assurance, Lao-Viet Insurance, Prudential Life Assurance, Tokojava Lao Assurance 등
	진출방안	-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외국계 기업 대상 B2B 마케팅 - 리스크 경감을 위한 각종 사회 통계치 획득 필요
품목명 3		
운송 서비스	선정사유	- ASEAN 물류 허브 요지임에도 물류 서비스 기반이 매우 제한
	시장동향	- 라오스는 ASEAN 물류 허브를 목표로 전국에 물류 시설을 개발 중이며, 간편하고 효율적인 운송 서비스 개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우체국 운송 및 집배 서비스의 온라인 관리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우체국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설정함
	경쟁동향	- 우체국, TNT, DHL, PT Air cargo, OCS 등의 대형 회사 및 HounAloune, Kienkay, Xangnoy 등의 중소 운송 서비스 존재 - 식품 배달업체로는 Foxpress, Loca 등이 있음
	진출방안	- 대규모 창고, 콜드체인 구축 등 현지에 없는 특화된 체계 도입 - Door-to-Door 서비스로 수요층에 간편성 어필 필요

품목명 4		
사교육 서비스	선정사유	- 중고소득층의 경우 학비가 비싼 국제학교에 보낼 정도로 교육열 높음 - 미흡한 교육 시스템 강화, 초기에 시장 선점 가능
	시장동향	- 젊은 인구가 많아 서비스 수요층이 넓은 편임 -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고 개인교습 등 사교육 서비스가 영세 - 2년제 대학이 영어교육기관으로 인식될 만큼 비즈니스형 기관 부재
	경쟁동향	- 개인교습교사, 일부 College에 사교육 수요가 집중
	진출방안	- 국제기구 개발 협력 추진 사업과 연계하여 실적 이력 획득 - 한국에서 사용되는 교수법 등을 활용하여 교육역량 향상에 타깃 - CSR을 활용하여 라오스 교육 수요층 마케팅 활용
품목명 5		
관광 서비스	선정사유	- 관광업은 라오스의 중점 산업으로, 에코투어리즘을 성장동력으로 설정 - 2024년이 라오스 방문의 해로 선정된 만큼 관광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 수요 예정
	시장동향	- 미비한 기반시설, 지역별 대표 관광자원 부족, 낮은 서비스 품질 - 관광 예약 플랫폼, 여행상품 기획 및 판매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개발 등이 향후 동 분야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음
	경쟁동향	- 관광 부문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거의 전무
	진출방안	- Facebook 등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실시 - 라오스 문화정보관광부 등 관공서/지자체 연계 캠페인 추진 - 태국, 베트남 등 인근 관광 인기국과의 투어를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
레저(골프) 서비스	선정사유	- 최근 방영된 골프 예능 방송을 계기로 여행 테마가 배낭여행에서 골프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 - 갖춰진 시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한국인의 수요가 급증
	시장동향	- 비엔티안 중심 기준으로 접근성 좋은 골프장 5곳 위치 - 한국 노하우와 자본이 들어간 골프장 3곳 운영 -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항공편이 점차 늘어날 예정
	경쟁동향	태국, 필리핀, 베트남
	진출방안	- 골프 레슨이나 아카데미 등은 항공편 확장에 따라 높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골프웨어나 액세서리는 한류 스타나 골프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접근 필요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ICT·전력기자재 등 무역사절단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 	연간 2~3회/ 비엔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스 유통망 입점 지원 사업 	연중/비엔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관 협업 K소비재 상품전 	상반기/비엔티안
프로젝트 경제협력 확대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Global Net-Zero Connection in Laos 	상반기/비엔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오스 프로젝트 파트너링 상담회 	연중 1회/비엔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25년 '라오스 폐수 처리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 KSP 프로젝트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보고회 : 1분기/비엔티안 - 중간보고회 : 2~3분기/서울 - 최종보고회 : 4분기/비엔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25년 '루앙프라방 공항 개발 사업' KSP 2차년도 프로젝트 -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보고회 : 2분기/비엔티안 - 중간보고회 : 3분기/서울 - 최종보고회 : 4분기/비엔티안
투자진출기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진출기업 정례 세미나 	분기 1회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정치 행사	일정(잠정)	비고
라오스 정기국회(1차)	3~4월	
라오스 정기국회(2차)	10~11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경제 행사	일정	비고
16 th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	상반기	라오스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간 현안 논의

주요 법령	일정	비고
부패방지법 개정안	상반기	부패 공직자 대상으로 벌금 액수를 높이고 부패 유형을 구체화하여 각 유형별로 처벌 명시 예정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전시회	일정(잠정)	비고
Lao Digital Week	2025-01-09~12	ICT, 디지털 전환 관련 전시회
Vientiane Motor Show	2025-03-12~16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중장비, 자동차부품 관련 전시회
The 9 th Vientiane Furniture Fair	2025-03-27~30	가구, 목재, 건축 자재, 홈 데코레이션 관련 전시회
ALACE Expo	2025-06-09~15	건축 자재, 건설 장비, 홈 솔루션, 건축 설계 관련 전시회
Lao top 3 Expo	2025-07-01~06	전 산업 분야 전시회
Made in Laos	2025-09-24~28	소비재, 섬유, 가구 관련 전시회
Lao Handicraft Exhibition	2025-10-11~14	수공예제품, 섬유 관련 전시회
Vientiane International Motor Expo	2025-11-17~23	자동차, 전기차, 충전소, 중장비, 자동차부품 관련 전시회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박세연	과장	비엔티안 무역관	070-7735-9545	laoskotra@kotra.or.kr

2025 라오스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